

필로폰 밀반입 조직원 무더기 검거·7명 구속

지난해 10월 24일 제주국제공항 통해 마약 밀반입 모두 중국 출신… 귀화·영주·단기체류·불법체류 등 중국 총책·밀수 지시자 인터폴 적색수배 검거 총력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4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의 마약을 밀반입, 국내 유통을 시도한 범죄조직이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경찰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마약 밀수 및 판매 조직원과 투약자 등 12명을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중 7명은 구속됐다. 이들은 모두 중국 출신으로 귀화자, 영주권자, 단기비자, 불법체류

자 등으로 확인됐다. 또 제주와 서울, 수원, 부천, 인천, 충북 등 전국 각지에서 검거됐다. 이들 중 7명은 제주에 필로폰 1.131kg을 밀반입하고 수도권으로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마약 유통의 최종 목적지는 경기도 시흥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5명은 국내 판매책들로부터 마약을 매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국내 판매책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필로폰 50g을 추가로 적

발했다. 경찰이 이들 조직으로부터 압수한 필로폰은 1.181kg이다. 시가 7억9000만원 상당, 약 4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앞서 30대 중국인 밀수책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제주공항을 통해 제주에 입도하며 차(茶) 봉지로 위장한 필로폰 1.131kg을 밀반입한 혐의로 같은 달 27일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밀반입한 마약을 운반하기 위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물품을 서울로 옮겨주면 일당 30만원을 주겠다”는 모집 공고를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공고를 통해 A씨로부터 물품을 전달받은 20대 한국인 남성은

수상함을 느껴 지난해 10월 27일 오후 3시쯤 함덕파출소에 “폭발물로 의심된다”고 신고하면서 이들의 범행이 드러났다. 경찰의 수사 끝에 마약 밀반입에 가담한 12명이 검거됐으나 조직의 40대 중국인 총책 B씨와 A씨에게 마약 밀반입을 지시한 30대 중국인 C씨는 아직 검거되지 않았다. B씨와 C씨는 현재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상태다. 한편 이들 조직을 검거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주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최근 주요 우수사례로 선정, 특별성과 포상금 500만원을 지급받았다.

양유리기자 glassy38@ihalla.com

조업 어획량 부실 기재

서귀포해경, 중국어선 나포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전날 오후 3시 35분쯤 마라도 남쪽 57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 A호(212t, 승선원 8명, 단타망)를 조업일지 부실기재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26일 밝혔다. 해상경비 업무를 수행 중이던 해경 5002함은 전날 오후 2시 30분쯤 A호에 대한 검문검색을 실시한 결과 조업한 어획량을 축소 기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기재한 어획량은 176kg이었으나 실제 조업 어획량은 310kg에 달했다. 조업량의 절반 가까이를 낮춰 기재한 것이다.

이에 해경은 조업일지 부실기재 위반으로 A호를 나포했다. A호는 이날 담보금 4000만원을 납부하고 오후 3시 10분쯤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제주 바다의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조업 외국어선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양유리기자

독자 제보 750-2232



꽃망울 머금은 복수초 26일 제주시 봉개동 민오름 인근 숲속에 봄을 알리는 복수초가 꽃망울을 터트릴 준비를 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서귀포 도시우회도로 공론화 시민단체 반발

서녹사 “본질 흐려… 행정 책임 주민 갈등으로 치환”

제주특별자치도가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 갈등 해결을 위해 속의 워크숍과 100인 원탁회의를 결합한 속의형 공론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일부 시민단체에서 반발이 터져 나왔다. 제주도는 26일 고승한 도 사회협약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공론화 추진단’을

공식 위촉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향후 의제 설정부터 원탁회의 운영까지 공론화 전 과정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추진단은 26일 갈등을 겪고 있는 서미모(서귀포 미래를 생각하는 모임), 동홍동마을회와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이어 27일에는 서녹사(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녹지공원

화를 바라는 사람들)와도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다만 서녹사는 26일 성명을 내고 “공론화에 앞서 행정의 해명이 먼저”라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참석하되 공론화 절차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이들은 “우회도로 문제를 의제 속의단과 원탁회의 형식으로 공론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론화 자체가 오히려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행정의 책임을 주민 갈등으로 치환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오소범기자

읍·면지역 교통사고 위험지점에 안전시설

애월·한림·대정·조천·표선 등 5개소 대상 추진

도내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읍·면 지역 노선 5곳에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국비 13억원을 투입해 ‘2026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 대상지는 ▷애월읍 광령3교차로 ▷한림읍 예인교회 앞 교차로 ▷대정읍 안성2교차로 ▷조천읍 흑룡교차로 ▷표선면 관통사업구4가 등 5개소로 연간 교통사고가 3회 이상 발생하는 위험 지점이다. 제주자치도는 대상지에 무인교통단속장비, 교통신호등 및 각종 도로안전시설물을 설치할 예정으로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 3월 착공,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앞서 2022년에도 ▷애월읍 광령1

리교차로 ▷조천읍 사리탐교차로 ▷조천읍 북촌서교차로 ▷남원읍 서성로입구교차로 ▷대정읍 일과사거리 ▷애월읍 고성교교차로 등 사고위험이 높은 도내 지방도 6개소에 대해 도로구조개선사업이 진행됐다. 이 결과 교통사고는 15건에서 5건으로 66.7% 감소했으며 인명피해도 21명에서 8명으로 61.9% 줄어드는 등 개선 효과가 뚜렷하게 확인됐다. 박재관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과학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정된 위험지점을 집중 개선하는 만큼, 실질적인 사고 예방 효과가 매우 높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도민들이 보다 안전한 도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심정지 자발순환 회복률 4년 연속 전국 1위

2025년 20.4%… 제주, 최근 3년간 매년 상승세 유지

심정지 환자 병원 도착 15분→2025년 13분으로 단축

제주소방이 4년 연속 심정지 환자 자발순환 회복률 전국 1위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26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심정지 환자의 병원 도착 전 자발순환 회복률은 20.4%로 전국 도 단위 1위를 기록했다. 앞서 3년간(2022~2024년) 회복률은 2022년 15.5%, 2023년 18.8%, 2024년 20.4%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제주소방에 심정지 환자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구급상황관리센터 근무자들이 영상통화를 통해 신고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안내한다. 환자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출동 구급대에게 전달함으로써 현장 도착 전부터 구조가 이뤄지는 시스템이다. 또 현장에서는 다중 출동 체계와 전문 처치 역량을 강화했다. 이송 단계에서는 전국 최초로 소방·자치경찰·교통방송이 협력하는 신속 이송 트라이앵글 체계를 가동해 중증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중증 응급환자의 경우 교통 정체가 우려되면 도내 전 지역에 구축된 우선 신호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자치경찰의 에스코트 지원과 동시에 구급차 이동 경로를 TBN 교통방송 라디오를 통해 도민에게 선제적으로 안내해 병원 도착 시간을 단축하고 있다. 그 결과 심정지 환자의 평균 병원 도착 시간은 2020년 15분에서 지난해 13분으로 줄었다. 지난해 심정지 환자 95명이 병원 도착 전 자발순환을 회복했으며, 이 가운데 일반인이 최초 반응자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사례는 62건에 달했다. 박진수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장은 “도민의 손에서 시작된 심폐소생술과 현장 대응, 병원 이송까지 이어지는 골든라인을 앞으로도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유리기자

보청기 구입 요령, 이것만 알면 후회 없다!

보청기, 소음 환경에서도 잘 들리나?

보청기를 사용하며 불편하고 어려웠던 문제는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여러 사람과의 대화가 어렵다는 것과 소음 상황에서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다. 조용한 곳에서는 잘 들리지만 주변이 시끄러워지면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 많은 보청기 사용자들의 문제였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와이덱스 보청기는 주변 환경에 맞춰 스스로 소리를 변화시키는 환경 적응형 프로세서를 중저가의 보급형 보청기부터 탑재하여 환경

에 따라 잡음은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말소리는 선택적으로 크게 증폭하여 소음상황에서도 대화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말소리를 더 똑똑하게 들을 수 있을까?

대부분의 노인성 난청인들이 겪는 불편은 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지는 문제로 말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없다는 것이다. 노인성 난청은 주로 고음의 소리를 감지하는 청각세포의 손상으로 발생한다. 말소리 분별의 어려움을 겪는 난청인은 본인 스스로가 난청인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어 하며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소리를 분명하게 듣기 위해서는 퇴화된 청각세포로 입력되는 높은 주파수대의 소리를 건강한 청각신경세포에서 잘 들을 수 있도록 소리의 주파수로 대역을 이동시켜, 소리를 듣게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주파수전위 기능(Audibility extender)이란 것이 있다. 이는 와이덱스 보청기만의 고유 기술로서 청각세포 손상으로 명확한 소리를 듣지 못하는 분들에게 적용되어 소리를 듣게 만드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보청기는 어떻게 구입해야 하나?

난청을 느끼고 보청기를 구입 하

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4년 미만이지만 전체 46% 정도 되고, 나머지 54%는 5~10년이 지난 후에야 보청기를 착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난청을 방치 후 보청기를 착용하는 경우 보청기를 착용하고도 말소리의 분별력이 좋지 않은 현상이 발생하곤 한다. 이는 뇌에서 어음을 이해하는 부분의 기능저하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난청을 느끼면 보청기 착용 시점을 가능한 앞당겨야 어음분별력이 더 이상 퇴화되지 않게 된다. 또한 잘 듣지 못하는 상태가 장기화되면 본인의 발음 또한 분명하지 않게 된다. 난청이 의심되면 방치하지 말고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야 한다. 난청은 사람마다 그 정도가 달라 정확하게 청력을 맞추지 못하면 소리의 변별력이 떨어지고 소리가 불편하게 들리기도 한다. 따라서 보청기의 제작은 정확한 청력검사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 와이덱스의 전 제품은 컴퓨터와 연결하여 조절하는 디지털 보청기이며, 와이덱스의 센소그래프 시스템은 보다 정확한 청력보정 방법으로 청력에 맞춰 소리를 조절하여 좀 더 선명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도와준다.

와이덱스 보청기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자의 주시'와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한국의료기기 산업협회 광고사전심의 심의번호 2010-GN180079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위치)

제주청능재활센터

이명전문케어센터

상담예약 064) 755.1005

원장 강동우
청각학박사
산학협력교수
전문 청능사
언어재활사

